

코다 “고진영, 실수하지 않는 올어라운드 플레이어”

넬리 코다(미국)가 여자골프 일인자를 놓고 경쟁중인 고진영(26·솔레이어)의 활약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코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진영의 최근 활약을 보는 것이 솔직히 즐거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고진영은 실수를 하지 않고 퍼팅이 좋다. 공을 홀컵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아는 올어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높이 평가했다.



▲ 넬리 코다. 사진=shutterstock

2021시즌 중반까지 코다는 여자골프계를 지배했다. 코다는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을 비롯해 6월까지 3승을 휩쓸었다.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뒤 출전한 2020 도쿄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9월부터 고진영의 무서운 추격이 시작됐다. 올림픽 이후 휴식기를 가진 고진영은 9월 LPGA투어

에 복귀,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정상에 섰다. 그리고 10월초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10월 중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등도 잇따라 제패하며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고, LPGA투어 올해의 선수상 경쟁에서도 코다를 제쳤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코다가 고진영을 0.004점 차로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코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내가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다고 얘기해줘서 매우 놀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코다와 고진영은 세계랭킹 1위, 올해의 선수상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코다는 “트로피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골프를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SF와 어울려”



▲ 김광현. 사진=redbirdtrants.com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FA)선수 자격을 얻은 김광현(33)이 메이저리그에 잔류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어울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스포츠포니아'에 따르면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전날 FA 자격을 얻은 선수의 랭킹을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했다. 김광현은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매체는 순위와 함께 김광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팀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꼽았다. 샌프란시스코는 107승으로 이번 시즌 최다승 팀이다.

또 이 매체는 김광현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할 경우 선발 마운드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샌프란시스코는 케빈 가우스만이 FA 자격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선발 마운드에 빈 구멍이 있는 편이어서 김광현이 선발 투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김광현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2시즌 동안 총 35경기(28선발)에 나서 145 2/3이닝을 던지며, 10승 7패 2세이브와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에는 27경기(21선발)에서 106 2/3이닝을 던지며, 7승 7패와 평균자책점 3.46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

현재 기량만 놓고 볼 경우 하위 선발진에서 충분히 제 몫을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로 왼손 선발 투수라는 강점도 갖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다. 이는 김광현이 샌프란시스코로 갈 경우 성적 향상이 예상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레이커스‘비상’... “제임스, 12월까지 결장할 수도”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의 결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디에스레틱스는 최근 “제임스가 최고 1주일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르브론 제임스. 사진=sportskeeda.com

이 매체는 전직 레이커스 근력 및 컨디셔닝 코치인 빌 오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하며 제임스가 입은 복직근 염좌 부상은 보통 4~8주의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제임스의 경기 방식을 보면, 그가 4주 이내에 복귀하기 힘들 것이다. 너무 빨리 복귀하면 재발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제임스는 올 시즌 경기당 24.8득점, 7.0리바운드, 5.5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 발목 부상으로 고생한 제임스가 올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신음함에 따라 레이커스에 비상이 걸렸다. 제임스는 지난달 발목 부상으로 2경기를 결장했고, 이번 부상으로 또 전열에서 이탈하게 됐다.

레이커스는 라셀 웨스트브룩, 디안드레 조던, 카멜로 앤서니, 드와이드 하워드 등을 영입하며 우승에 도전하고 있으나 선수들끼리 호흡이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웨스트브룩은 매 경기 실책을 남발하고 있어 제임스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레이커스는 시즌 전, 30개 구단 단장들이 한 우승팀 예상에서 브루클린 네츠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TROPHY & ENGRAVING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